

“민족 주체성 상징으로 원효 스님 부각”

손지혜 박사, <불교평론> 가을호서 ‘원효’ 인식 논문 발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원효 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송유역불 시간 동안 저서 대부분이 소실되고 교학 조차 전승되기 어려웠다. 그런 원효 스님이 왜 근대에 들어서며 다시 주목받게 됐을까.

손 박사는 <불교평론> 가을호에 기고한 ‘근대기 한국불교는 왜 원효에 주목했는가’는 원효 스님이 부각된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손 박사는 근대기 조선불교 정체성의 문제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의식됐으며 이런 인식 위에 부각된 측면이 크다고 밝힌다. 특히 불교개혁론의 대두 등으로 불교도들은 적극 세속으로 뛰어들어 사회적 역할을 확장했으며 이로 인해 원효 스님이 한층 각광받게 됐다고 밝힌다.

손 박사는 이어 원효 스님 관련 자료의 발견과 집중도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1910년대부터 한일 양국 학자들에 의해 이전까지 40여 부로만 알려진 원효 스님의 저술이 90여 부로 집계된다.

손 박사는 “원효 저술의 필사본이 일본에서 진중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도 반성이 일어났다. 특히 조동종대학 유학생 정황진이 1918년 <대성화정국사원효저술일람표>를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점차 원효 스님은 ‘불교사상가, 대지술가’로 자리잡게 된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이어 “원효 스님의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적지 않은 민족의식이 개입됐다”며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민족영웅과 개혁자, 통교론자로서 표상화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원효 만을 잘라내 한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원효 스님을 한국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배경에 일본에 대한 저항감과 선진불교로 부상하던 일본불교계에 대한 동경, 중국불교 이류설에 대한 반발, 불교의 과거 위상 회복 열원 등을 들었다.

손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원효 인식의 변화와 배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효는 종래 불교계 인물로

1910년대부터 재조명 일본불교 반발·동경 작용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이지만, 특정 주석서에 대한 연구, 혹은 생애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을 뿐 원효라는 인물상의 역사적 정착 과정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근대기 원효 스님이 표상화된 사례를 △민족영웅으로 부상 △불교계 개혁의 모델 △통교론의 실현자 △호국의 승려 △선교(禪敎) 통합의 중조상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손 박사는 또 “한국에서는 중국 화엄과 다른 독자 화엄학을 세운 인물로 각광을 받게 됐다”며 “특히 196~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 국민총화와 맞물려 반공, 국론 단합을 외치는데 활용됐다. 이 같은 경향은 1980년대 삼국통일의 이데올로기로 원효 스님의 회상귀일이 활용됐으며 이후 남북통일의 철학적 근거로까지 진화한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효장공원에 세워진 원효 동상을 올려다 볼때 호국승군단이 창설되던 유신정권이 왜 저 동상이 세워졌을까를 한번



원효 스님 영정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현 불교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호국불교론’ ‘조계종 정체성과 종조론’ ‘민족주의 불교론’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신행체계와 재가불자 신행’ 조명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불광교육원 문수당에서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을 주제로 제25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불광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초기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신행론’, △고

영섭 동국대 교수의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신행론’, △양승규 티벳대장경연구원 전임연구원의 ‘티베트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신행론’, △김진주 절강사회과학원 객원교수의 ‘선과 중국의 재가불자 신행론’,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현대사회와 재가불자 신행론’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보각)은 10월 17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언·다라니 실담의 전래와 변용’을 주제로 201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언·다라니 실담의 형성과정’에 대해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석 스님이 발표하며 이정수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2부행사에서 △‘법자언의 지역별 전개 유형’에 대해 허일범 진각대 교수가 발표하며 정성준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이어 △남관희 경북대 교수의 ‘한국의 陀羅尼 간행과 유통에 대한 서지적 연구’, △임기표 단국대 교수의 ‘외당에 수록된 실담자형 연구’ 등 발표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묘엄불교문화재단, 제3회 불교문화상 공모

수원 봉녕사 회주 묘엄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한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제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은 10월 31일까지 제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개인 또는 단체 2곳으로 불교문화, 실천, 학술, 교육, 포교, 수행, 예술 등 각분야에서 활동한 이들이 대상이다.

묘엄불교문화재단은 한국 비구니계의 큰 어른인 묘엄 스님이 2011년 12월 입적하며 남긴 유지를 실천하기 위해 2012년

8월 봉녕사에서 창립됐다. 제1회 묘엄불교문화상 수상자로는 동아시아 여성 불교연구가 조승미 교수, 찬불 작곡가 이찬우 선생이 선정됐으며, 제2회 수상자로는 ‘좋은빛 풍경소리’와 법보신문이 선정된 바 있다.

접수는 온라인 묘엄불교문화재단 다음 카페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재단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각 1000만원으로 시상식은 묘엄 스님 추모대례일에 거행된다. (051)510-2076

노덕현 기자

가을맞이 불교무형문화재 시연행사 ‘풍성’

10월 10일 진관사 수륙재, 15일 아랫넛 수륙재 등 예정

불교 무형문화재가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10월부터 열리는 가운데 불교무형문화재가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10월에는 총 24종목 27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제27호 승무(이예주, 25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를 시작으로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10~11일, 서울 진관사), 제127호 아랫넛 수륙재(15~16일, 창원 백운사)가 거행된다. 제108호 목조각(박찬수 23일~11월 1일 산청 목조각전수회관), 제120호 석장(이의상,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선보이는 공예미술도 직접 볼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의레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 사지대제(4일 종로구 사지전)의 장엄한 무대를 시작으로 △제12호 진주검무(9일 진주성 남강 유등축제 특설무대) △제11-4호 강릉농악(10일 강릉농악전



진관사 수륙재 시연 모습

수회관)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24일 사천시 남양동 임내숲) 등 멋과 흥이 넘치는 무대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5호 판소리(신영희, 16일 경북궁 수정전·성창순, 17일 경북궁 수정전·박정자, 21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제16호 거문고산조(김영재, 29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제20호 대금정악(조창훈, 18일 경북궁 수정전)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문재수, 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제45호 대금산조(김동표, 30일 국립부산국악원) 등 구성진 우리 가락의 향연이 펼쳐진다. (02)3011-2166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표충사 고문헌 전면 조사

9월 16일 고문헌 270여점 아카이브 구축 MOU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9월 16일 밀양 표충사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촬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진행 중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 일환으로 표충사가 소장한 270여 점의 고문헌을 종합 조사하는 첫 출발이다.

ABC사업은 한국불교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긴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조사·촬영,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확립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은 2012년 담양 용흥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곳의 사찰과 기관 등의 불교 고문헌을 조사·촬영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시 은평구 심택사의 <묘법연화경>, 경기도 고양시 대성암의 <묘법연화경요해> 등의 보물급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여 불교학과 역사·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



정승석 불교학술원장과 도훈 스님이 MOU를 맺고 있다.

관련 문헌 조사를 시작해 근현대불교에 있어서 선사 위상을 정립하는 기초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밀양 표충사는 1839년 밀양 영축산에 있던 표충사(表忠祠)를 이전, 중창하며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구대사 진영을 봉안한 곳이다. 표충사 소장 고문헌 중에는 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기록한 글은 모은 <분충서난록>을 비롯해 <표충사삼현대사충훈대략>, <표충사상사문서등록> 등이다.

서지 자료와 함께 50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촬영 결과물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에서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리뷰> 18호 원고모집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10월 20일까지 <불교학리뷰> 18호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논문(불교학 전반 및 문헌학 분야), 연구사 및 연구현황, 서평, 역주, 번역, 국내외 학술행사 참가기 등 다양하다.

원고분량은 논문은 본문과 각주를 포함

해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초판 시에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원고 작성방법은 시카고 매뉴얼의 저자-연도 표기 방식을 준수한다. 이전 간행물은 불교문화연구소 홈페이지(gcbs.geumgang.ac.kr/sub04_1)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21집 원고모집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10월 31일까지 <정토학연구> 제21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정토, 신앙, 의례, 문화 중심의 불교 관련으로 A4용지 15~18매에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10개, 영문 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회지 수록여부는 학회의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게재 여부는 추후에 통보된다. 제출된 원고와 디스켓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분량 및 투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토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격 : 59mm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이점

■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부산 : 010-9183-9729
평택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세종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